

돌담의 역사



광화문 앞에 해태 석상이

나란히 남쪽을 보고 지키고 있다. 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절에 가도 사천왕문이 입구에 서 있어서 거길 통과하여야만 대웅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 역시 화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마음의 징표이다.

집에도 재난을 막기 위해 대문에 글을 써붙였다. 음력 설이 되면 집집마다

「입춘대길」이란 글을 써서 대문에다 붙이는데 그때 글귀는 여러가지다. 그중에 재난 방지에 대한 글귀가 간혹 보인다.

「去千災 來百福」

(온갖 재난이 사라지고 만복이 찾아오네)

「災從春雪消 福徃夏雲興」

(봄이 오니 재난이 눈속듯이 사라지고 만복이 여름의 구름 일듯 찾아오네)

이처럼 수재와 화재, 그리고 풍재의 삼재로부터 면하게 해달라는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속담에도 “불난데 부채질”이니 “불난데 도둑질”이니 하는 말이 자주 쓰여왔다. 불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낸 말들이다. 여러가지 재난 중에도 불이 가장 불행한 일인데 거기다가 도둑까지 들게 되면

“ “
 나즈막한 돌담 너머로 정다운 친구를
 불러내고 또 어떤 청년은
 휘파람을 불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내기도 했다.
 ” ”

눈에 서리까지 겹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가 새끼를 물고 집을 떠나면 반드시 불이 나는 징조”라는 믿음이 있어왔고 “밤에 올빼미가 마을을 향해 울어대면 반드시 동네에 불난다”느니 “까치가 등지를 헐고 떠나면 반드시 그 집에 불이 난다”는 미신 아닌 미신들이 있었다.

왜 미신 아닌 미신이냐고 하느냐 하면 본시 동물의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여 어떤 재난을 미리 예감하는 본능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쥐가 배안에 가득 살고 있다가 배가 떠나기 며칠 전 쥐들이 항구에 대거 내려 버렸다고 하자. 선원들은 이 배 타기를 거절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쥐는 이 배가 가다가 화재를 만나 침몰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배를 버렸기 때문에 영낙 없이 배는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쥐가 새끼를 물고 집을 떠난다던지 까치가 등지를 허물고 떠난다던지하는 사실은 아주 불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옛날에는 불이 그렇게 무서운 재난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아는 일이지만 집과 집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다가 반드시 돌담에 둘러싸여 있어서 설사 한 집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옆 집에 옮겨 불을 염려가 없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자고로 큰 불이 나지 않았고 작은 불로 끝나는 것이 예사였다.

우리나라 농가의 돌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이야기해 왔다. 첫째 아름답다는 것이 그

하나다. 꼬불꼬불 곧 무너질듯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골집 돌담은 그래서 많은 화가들의 畵題가 되어 왔다. 지금은 새마을 운동 바람에 많이 헐려서 보기에 도 낭만이 없는 일직선의 블록 벽돌담으로 변하고 말았으나 우리 어릴때만 해도 나즈막한 돌담 너머로 정다운 친구를 불러내고 또 어떤 청년은 휘파람을 불어 애인을



66

집과 집을 가로막은 돌담의 주요 기능은
도난 방지용이라기 보다는 화재방지가
아니면 바람막이 정도의 필요때문에
습관적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99

불러내기도 했었다.

우리나라 돌담이 특히 낮다는 점이 둘째 특색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웃한 일본의 돌담은 아주 높다. 그래서 밖에서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고 안에서도 밖을 내다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주 폐쇄적인 일본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담은 왕실의 높은 담을 제외하면 아주 낮아서 개방적이지요, 아름다운 산천을 방안에서 내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돌담이 갖는 화재방지 기능이 약하다는 흠이 없지 않다. 흔히 민가의 담을 도난방지용이라고만 알고 있으나 도적이 적었던 옛날에 굳이 도난방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과 집을 가로 막은 돌담의 주요 기능은 기껏해야 화재 방지가 아니면 바람막이 정도의 필요 때문에 습관적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가 최근 대마도에 가서 그곳 이즈하라라는 고을에 남은 옛돌담을 보고 그 축조기술이 우리의 것과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았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이 담을 불막이로 쌓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바람이 몹시 부는 고장인데다가

집들이 모두 목조 건물이라 한번 불이 났다면 견잡을 수 없게 연소하여 큰 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영주저택이나 부자집들은 애써 높은 돌담을 쌓아 화재에 대비하였다는 것이며 어느 돌담에는 아직도 불길에 닿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마도는 제주도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 바람이 많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제주도 특유의 돌담이 집집마다 둘러 쌓여 있으나 바람막이로만 알고 있지 불막이로는 보지 않는다. 제주도 돌담은 밭에도 쌓여 있고 심지어 산소에도 둘러 쌓았다. 모두 바람막이다.

같은 지리적 조건인데 왜 대마도는 돌담을 화재방지로 쌓고 제주도에서는 바람막이로 쌓았는가. 색다른 의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돌담을 높이 쌓아 옆집에 난 불을 막는데 이용하는 일본인보다 하필이면 돌담가지고 불을 막으려 하느냐 하는 우리가 더 지혜롭다는 이야기와 조금만 거리를 두어 집을 지으면 능히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백년 사이에 일제침략으로 살림이 쪼들려 가난한 농가들이 많이 생겨 그런

여유있는 공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어떤 마을에서는 다닥 다닥 초가집이 붙어 있는데도 많으나 옛날에는 앞뒤 공간이 넓고 좌우 옆집과의 거리도 넉넉하였다. 불은 그것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니 돌담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돌담이지만 나라에 따라 그
기능과 효용이 다른 것이며 그에
따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아가서는 문화까지도
달라지는 것이다. 담이 낮아야
情과 정이 얽힌 따뜻한
마을이 이룩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 보면 아주



담이 없다. 그대신 집과 집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푸른
잔디가 심어져 있다. 토지에
여유가 있기 때문일까. 보기에
시원하다. 그러나 그들 사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담이
높이 쳐져 있어 이웃사이의 정이
고갈되어 있다고 듣고 있다.
아무리 담이 없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마음의 담이 높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다.

아뭏든 화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대화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 화재의
특징은 兵火라 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고 그 밖에
평화시에 실화나 방화로 큰 불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 수도 로마에 불지르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또 근세에
와서는 1666년 영국의 수도
런던대화재가 유명하다. 이
화재를 계기로 런던에서는 목조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고
화재보험제도도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역사 속에는 그런
대화재사건이 없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도 아니요, 그렇다고 큰
도시가 발달하여 삼시간에 한
도시가 전소되어 버리는 재난이

일어난 나라도 아니다. 남들은
불이 무서워서 궁전이나 신전을
높은 성벽으로 쌓아 올려 그
안에 안치함으로써 불의 공포를
떨치려 했는데도 우리네 도성은
그 안에 왕궁과 민가를 함께
짓게 하고서도 화재 걱정은
안했으니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다.

온돌에 초가집이라는 화마에
아주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戰火가 아니면 큰 불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달리 그 유래를
찾아 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
민족의 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그 때문인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불이 무서운 현대
도시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소화기 하나 갖추지 않고 태연히
사는 여유 아닌 여유를 누리고
있으니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일이 아닌가. **W**



박 성 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한국사학회 이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現)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인문연구실장